

힘있는 소방! 자랑스런 조직! 품격있는 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성명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6271- 0119 | 팩스 02-6234-1190 | 2021년 12월 24일
위원장 : 정은애 | 사무총장 : 고진영 | 메일 119union@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119union.net

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 구급대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 대책없는 위드 코로나 응급이송 사각지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 -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 당하며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응급의료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혈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또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방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21. 12. 23. 위드 코로나로 수도권 구급 응급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소방청은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려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노총 소방노조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실력행사를 총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필수요원에게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소방 구급대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임금 손실이 없는 4조 2교대를 실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노조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 12. 24.

소 방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